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성된다. 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되며,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편성·제출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해당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되,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본다.

보통 공공기관 예산안의 편성 및 확정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모두 12월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연도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12월이 되어서야 정부의 예산지원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사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예산안 및 부속서류(수입·지출계획서 등)를 이사회 구성원,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송부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송부하며, 이사회의 심의·의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및 감사원에 보고한다.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안이 공공기관 수입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예산안과 정부 예산안은 연계성이 높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정부와 소속 공공기관 예산 담당자 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정부의 예산안 편성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공공기관 예산안 편성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및 감사원에 보고한다.
- ②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의 예산에 관한 승인 이전에 수입·지출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송부한다.
- ③ 다른 법률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총사업비가 1,300억원,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이 800억원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인 가구의 소득은 다인 가구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2023년 1인 가구의 약 70%가 연소득 기준으로 3,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2,606만원)의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3,950만원)에 비해 34.0% 낮았다. 연령별로 균등화 소득 격차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경우 전체 가구와 1인 가구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30대부터는 커지기 시작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확대되었다.

1인 가구의 부채 대비 자산규모는 다인 가구의 부채 대비 자산규모를 상당폭 하회한다. 1인 가구 순자산은 2023년 기준 1, 2분위(전체 가구 기준 분위) 비중이 각각 45.1%, 26.9%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이 전체 가구 중 하위 50% 내에 분포하고 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균등화 순자산은 1억 6,000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균등화 순자산이 2억 8,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연령별로 균등화 순자산 격차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에서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30대부터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 모습이다.

1인 가구는 여타 가구에 비해 고용안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취업자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취업자 비율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으나, 50대 이상 취업자 비율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를 하회하고 있다. 이를 통해 30대 이하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노동의 질적 측면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여타 가구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데, 특히 고령층에서 그 정도가 심한 모습이다.

※ 균등화 처리 방법: 가구단위로 작성한 통계를 개인단위 통계로 이용하기 위한 통계적 처리 방법

<보 기>

- ㄱ. 고령층 1인 가구는 여타 가구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 ㄴ. 50대 1인 가구와 50대 전체 가구 간의 균등화 소득 격차는 40대 1인 가구와 40대 전체 가구 간의 균등화 소득 격차보다 크다.
- ㄷ. 1인 가구의 균등화 순자산은 전체 가구의 균등화 순자산의 60% 이상이다.
- ㄹ. 취업자 비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30대 이하 1인 가구, 50대 이상 전체 가구, 30대 이하 전체 가구, 50대 이상 1인 가구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조(과징금 처분) △△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3. 제○○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보 기>

- ㄱ. 자동차제작자가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 ㄴ.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인증 받아야 한다.
- ㄷ. 자동차제작자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매출액이 2조 5천억원인 경우, △△부장관은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없다.
- ㄹ. 자동차제작자 B가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여 기존에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매출액이 750억원일 경우, B는 37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계약 또는 용역계약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 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제□□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조제1항제2호다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보 기>

- ㄱ. A부처가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B와 추정가격 1천만원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ㄴ. C부처가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추정가격이 3천만원인 용역계약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 ㄷ. D부처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E와 추정가격 1억원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부장관은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 또는 □□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 또는 □□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 또는 □□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 외의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부장관은 분야별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이 22명일 수 있다.
- ③ 위원의 수가 20명인 상황에서 1명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지난해 정교수의 직급으로 대학에서 퇴직하여 현재 변호사 개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 관련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신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⑤ 임기가 3년 미만이 될 수 있는 위원은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자뿐이다.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서 전차인 丙이 임대인 甲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임의 총액으로 옳은 것은?

전대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새로 임차하는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월세) 지급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이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다시 차임 지급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전차인은 이중 지급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 (1)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에 또는 그 이후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는데 그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한 경우, 전차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 (2)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는데 그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해 차임 지급을 요구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차임 청구 시점 이전에 전대차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관해서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한다.

<상 황>

甲, 乙, 丙은 A국에 거주 중이다. 甲은 2022. 1. 1. 乙에게 A국 소재 X주택을 월 차임 100만원(차임은 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22. 1. 1.부터 2024. 12. 31.까지로 정해 임대했다.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2023. 1. 1. 丙에게 X주택을 월 차임 100만원(차임은 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로 정해 전대했다. 乙은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는 각 차임 지급 시기에 甲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했다. 丙은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는 각 차임 지급 시기에 乙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했다. 乙은 2024. 1. 10. 丙으로부터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의 1년치 차임 1,200만원을 먼저 수령하여 행방을 감추었고 2024년에 지급해야 할 차임을 甲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甲은 2024. 5. 20. 丙에게 2024. 1. 1.부터 2024. 4. 30.까지의 차임 400만원 및 2024. 5. 1.부터 2024. 12. 31.까지의 월 차임 100만원을 매달 말일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 ①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② 600만원
- ③ 700만원
- ④ 800만원
- ⑤ 1,200만원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보기>에서 주어진 상황 외의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 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봉급·수당·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매 15일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한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보 기>

ㄱ. 甲정당 유급사무직원의 2024년 평균 인건비는 5,000만원이었고, 중앙당에 90명의 유급사무직원을 두었다. 甲정당의 시·도당은 총 5개로 2024년 각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는 각각 35명, 25명, 19명, 12명, 11명이었다. 이 경우, 2025년 「정치자금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甲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에서 감액되는 금액은 1억원이다(단, 2025년 「정치자금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甲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1억원 이상이다).

ㄴ. 乙정당 □□시당 간부 A는 직책수행의 일환으로 지역 현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乙정당으로부터 총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A의 지역 현안업무는 □□시 내 5개 지역에 관한 업무로, 한 지역당 1,000만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경우, 간부 A는 乙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丙정당 △△시당은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상근직원 2명, 9일 근무하는 비상근직원 2명, 12일 근무하는 비상근직원 2명을 고용하고 수당을 지급했다. 이 경우, 丙정당 △△시당의 유급사무직원수는 5명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8.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점수 주행 시험 결과 최종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구리, 누리, 두리는 점수 주행 시험을 한다. 점수 주행 시험은 참가자 중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우승하며, 최종 점수는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구리, 누리, 두리는 시험에서 우승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종 점수의 값이 가장 큰 값을 가지도록 점수 주행 시험에 참가하였으며, 각 참가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단, 구리, 누리, 두리 모두 최종 도달 거리와 평균 속력이 각각 0km, 0km/h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험을 시작한 후 일정한 평균 속력을 유지한다.

- 구리: 내가 가장 길게 도달할 수 있는 최종 도달 거리는 320km야. 그때 평균 속력은 55km/h까지 가능해. 나는 최종 도달 거리를 20km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데, 최종 도달 거리가 20km씩 줄어들 때마다 평균 속력은 1km/h씩 빨라질 수 있어.
- 누리: 나는 주행을 시작하면 멈추는 게 힘들더라. 내가 가장 짧게 도달할 수 있는 최종 도달 거리는 130km야. 그때 평균 속력은 85km/h인데, 최종 도달 거리가 20km씩 증가할 때마다 평균 속력은 5km/h씩 느려지더라. 나도 구리처럼 최종 도달 거리는 20km 단위로만 조정 가능해.
- 두리: 나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뛸 수 있어. 예전에 뛰어봤는데 최종 도달 거리는 270km였고, 완주하는 데 3시간이 걸리더라.

<조 건>

- 최종 점수는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최종 점수(점) = 거리점수(점) × 속력점수(점)
- 거리점수와 속력점수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정해진다.

거리점수	0점	2점	3점	4점
최종 도달 거리	100km 미만	100km 이상 200km 미만	200km 이상 300km 미만	300km 이상
속력점수	0점	4점	5점	6점
평균 속력	50km/h 미만	50km/h 이상 60km/h 미만	60km/h 이상 80km/h 미만	80km/h 이상

- 최종 도달 거리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따른다.
최종 도달 거리(km) = 완주에 소요되는 시간(시간) × 평균 속력(km/h)

- ① 구리, 누리, 두리
- ② 구리, 두리, 누리
- ③ 누리, 구리, 두리
- ④ 두리, 구리, 누리
- ⑤ 두리, 누리, 구리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갑은 암호문으로 글쓰는 것을 좋아한다. 갑의 암호 해독표는 다음과 같다.

<암호 해독표>

ㄱ	ㄴ	ㄷ	ㅈ	ㅊ	ㅌ	ㅍ	ㅎ	ㅊ	ㅌ	ㅍ	ㅎ
ㄴ	ㅊ	ㅌ	ㅍ	ㅎ	ㅊ	ㅌ	ㅍ	ㅎ	ㅊ	ㅌ	ㅍ
ㅈ	ㅊ	ㅌ	ㅍ	ㅎ	ㅊ	ㅌ	ㅍ	ㅎ	ㅊ	ㅌ	ㅍ

<예 시>

○ 해외여행 :

ㅈ	ㅊ	ㅌ	ㅍ	ㅎ	ㅊ	ㅌ	ㅍ	ㅎ	ㅊ	ㅌ	ㅍ
ㅈ	ㅊ	ㅌ	ㅍ	ㅎ	ㅊ	ㅌ	ㅍ	ㅎ	ㅊ	ㅌ	ㅍ
ㅈ	ㅊ	ㅌ	ㅍ	ㅎ	ㅊ	ㅌ	ㅍ	ㅎ	ㅊ	ㅌ	ㅍ

<보 기>

ㄱ. 국회: ㅈㅊㅌㅍㅎㅊㅌㅍㅎ

ㄴ. 대한민국: ㅈㅊㅌㅍㅎㅊㅌㅍㅎㅈㅊㅌㅍㅎ

ㄷ. 사무관: ㅈㅊㅌㅍㅎㅊㅌㅍㅎ

ㄹ. 민주주의: ㅈㅊㅌㅍㅎㅊㅌㅍㅎㅈㅊㅌㅍㅎ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마법학교 신입생인 갑, 을, 병, 정, 무의 기숙사를 배정하기 위해 마법의 모자를 씌우려고 한다.
- 마법의 모자를 씌우면 마법의 모자는 학생별로 ‘화이트’, ‘블랙’, ‘그레이’ 3개 기숙사 중 하나를 말하고, 각 학생은 해당 기숙사에 배정된다.
- 화이트에 배정된 학생은 진실만을 말하고, 블랙에 배정된 학생은 거짓만을 말하며, 그레이에 배정된 학생은 진실을 말하기도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
- 마법의 모자가 오작동하는 경우 무조건 블랙에 배정된다.
- 다음은 각 학생의 발언이고, 학생들은 서로 어느 기숙사에 배정되었는지 알고 있다.
 - 갑: 나는 그레이에 배정받지 않았어.
 - 을: 나는 갑과 같은 기숙사에 배정받았어.
 - 병: 정은 블랙에 배정받았어.
 - 정: 나는 블랙에 배정받았어.
 - 무: 마법의 모자는 나에게 그레이라고 했어.
- 마법의 모자는 2번 오작동하였다.
- 을에게는 마법의 모자가 오작동하지 않았다.

<보 기>

ㄱ. 정은 그레이에 배정받았다.

ㄴ. 무는 블랙에 배정받았다.

ㄷ. 5명 중 블랙에 배정된 학생이 가장 많다.

ㄹ. 갑은 화이트에 배정받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는 수산시장에서 세 마리로 구성된 모듬회 한 세트를 구매했다. 한 세트는 아래 <모듬회 가격표>의 다섯 가지 어종 중 서로 다른 세 가지 어종으로 구성되며, 한 세트 내 어종의 사이즈는 모두 동일하다. 세 마리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세트의 가격이 된다.

가게에서 공개한 가격표는 다음과 같다.

<모듬회 가격표>

(단위: 원/마리)

어종 \ 사이즈	방어	연어	광어	숭어	도미
소	30,000	14,000	28,000	12,000	18,000
중	38,000	22,000	30,000	18,000	24,000
대	50,000	31,000	38,000	28,000	35,000

<보 기>

ㄱ. 가격이 76,000원인 세트에는 항상 방어가 포함된다.

ㄴ. 대 사이즈 세트가 항상 중 사이즈 세트보다 비싸다.

ㄷ. 소 사이즈 세트와 대 사이즈 세트의 가격 차이는 최소 20,000원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2.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화요일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종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요일별 과일 섭취 계획을 마련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계획대로 섭취하려 한다. 단, 甲이 과일로 일주일에 지출하는 비용은 총 3만원이다.

구분	체리	딸기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색상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조각형태	○	△	○	○	△	○
가격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5천원

<조 건>

○ 매일 1개의 과일을 먹는다.

○ 각 과일을 최소 1번은 먹는다.

○ 같은 색상의 과일을 연속으로 먹지 않는다.

○ 같은 종류의 과일을 연속으로 먹지 않는다.

○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조각형태가 △인 과일만 먹는다.

○ 월요일에는 포도를 먹는다.

○ 목요일에는 빨간색 과일을 먹지 않는다.

- ① 오렌지
- ② 사과, 오렌지
- ③ 체리, 딸기, 사과
- ④ 체리, 딸기, 오렌지
- ⑤ 체리, 사과, 오렌지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회에서는 2025년을 맞아 그룹가수 A, B, C, D와 솔로가수 甲, 乙을 초청해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콘서트는 총 6번의 공연으로 구성되며, 각 가수는 한 번씩만 공연을 한다. 공연 순서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마지막 공연은 솔로가수가 아니다.
- 그룹가수 C는 전반부(1~3번 순서)에 공연을 했다.
- 그룹가수 A 바로 다음은 솔로가수 甲의 공연이다.
- 그룹가수 C 직전에는 그룹가수가 공연을 했다.
- 솔로가수 乙은 3번 순서에 공연을 하지 않았다.
- 그룹가수 A보다 그룹가수 B가 먼저 공연을 했다.

<보기>

- ㄱ. 그룹가수 D가 마지막 순서에 공연을 했다.
- ㄴ. 그룹가수 A는 솔로가수 乙보다 먼저 공연을 했다.
- ㄷ. 그룹가수 B는 2번 순서에 공연을 했다.
- ㄹ. 솔로가수 甲이 4번 순서에 공연을 했다면 솔로가수 乙은 후반부(4~6번 순서)에 공연을 했을 것이다.

- ① $\neg, \perp$
- ② $\neg, \top$
- ③ $\neg, \bot$
- ④ $\perp, \top$
- ⑤ $\perp, \bot, \top$

14. 다음 <규칙>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규 칙>

- 특정 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각자의 생일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며, 이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한 명의 생일자만이 있다고 가정한다.
- 코드는 원칙적으로 태어난 월에 태어난 일을 합한 값으로 한다.
- 예외적으로, 태어난 월과 태어난 일이 같은 사람(예: 7월 7일)은 월과 일을 합한 값에 2를 곱해 코드를 정한다.
- 윤년이 아닌 해의 총 날짜 수는 365일이며, 윤년인 해에는 2월 29일이 추가되어 총 날짜 수가 366일이다.

- ① 코드가 9인 사람의 수는 코드가 10인 사람의 수와 같다.
- ② 같은 코드를 받는 사람의 수는 코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③ 윤년인 해와 그렇지 않은 해에 부여될 수 있는 코드의 가짓수는 동일하다.
- ④ 가장 낮은 코드와 가장 높은 코드의 차이는 45이다.
- ⑤ 가능한 코드의 가짓수는 46개이다.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전자시계에 표시된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조합만을 모두 고르면?

‘□□ : □□’와 같이 24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전자시계(예를 들어, 23:35, 06:48 등)를 보고 갑, 을은 다음과 같이 잘못 읽는다.

- 갑은 4개의 숫자 중 2개는 다르게 말하며, 나머지 2개는 숫자와 위치 모두 같게 말한다. 단, 24시간제에 맞게 말한다.
- 예를 들어, 23:46인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숫자를 다르게 말한다고 했을 때 12:46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고, 35:46이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 을은 4개의 숫자를 맞게 말하지만 위치를 임의로 말한다. 단, 표시된 시계와 동일하게 말하지는 않고 24시간제에 맞게 말한다.
- 예를 들어, 23:16인 경우 12:36, 13:26, 21:36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고, 23:16이라고 하거나 36:21이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 단, 갑과 을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전자시계를 보고 있다.

<보 기>

- ㄱ. (갑, 을) = (04:38, 10:36)
 ㄴ. (갑, 을) = (16:42, 01:27)
 ㄷ. (갑, 을) = (15:26, 23:14)
 ㄹ. (갑, 을) = (23:33, 23:26)

- ① $\neg, \perp$
- ② $\neg, \top$
- ③ $\perp, \top$
- ④ $\perp, \bot$
- ⑤ $\top, \bot$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250명이 짝짓기 게임을 한다.
- 짝짓기 게임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라운드가 시작되면 제시인원이 호명된다.
 - 게임 참가자는 호명된 제시인원에 맞추어 짝을 지어 제한시간 안에 준비된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 제한시간이 끝난 후 제시인원에 맞추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생존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 제한시간 안에 짝을 지어 방에 들어가지 못한 인원은 모두 탈락한다.
 - 방에 들어가더라도 방 안의 인원이 제시인원에 맞지 않으면 모두 탈락한다.
 - 주어진 방은 총 50개이며 한 방에 최대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 게임은 총 6라운드로 진행된다.
- 게임의 진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매 라운드마다 30명 미만의 탈락자가 발생하였다.
 - 매 라운드마다 호명된 제시인원은 각각 달랐다.
 - 매 라운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일부 결과가 지워져 있다.

(단위: 명)

구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제시인원	11	9	()	()	6	3
생존인원	()	()	184	172	168	147

<보 기>

- ㄱ. 2라운드의 탈락자는 24명이다.
- ㄴ. 3라운드의 제시인원은 8명이다.
- ㄷ. 6라운드에서 방에 들어가지 못하여 탈락한 인원은 3명 이상이다.
- ㄹ. 생존자가 있는 방의 개수가 가장 적은 라운드는 2라운드이다.

- ① $\neg, \perp$
- ② $\neg, \top$
- ③ $\perp, \top$
- ④ $\neg, \perp, \top$
- ⑤ $\perp, \top, \neg$

1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회사에서 2024년 업무 평가 A등급을 받은 사람은?

□□회사에는 갑, 을, 병, 정, 무 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회사는 매년 초 전년도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하는데, 업무실적별로 부여받은 점수의 총합과 부서장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S, A, B, C, F등급으로 나뉜다. 부서장 평가 점수는 우수는 50점, 보통은 30점, 미흡은 10점이며, 각 업무실적 항목별 부여되는 점수는 다음과 같다.

보고서 작성	1건당 해당 점수 부여 - 15페이지 이하 10점, 16페이지 이상 30페이지 이하 20점, 31페이지 이상 50점 - 단, 5페이지 이하 보고서는 점수 없음
PPT 작성	1건당 해당 점수 부여 - 30장 이하 10점, 31장 이상 60장 이하 20점, 61장 이상 30점 - 단, 10장 이하 PPT는 점수 없음
고객사 미팅	1건당 10점의 기본점수 부여 - 단, 미팅이 계약 성사로 이어진 경우 1건당 50점 가산
출장	국내출장: 1건당 5점 부여 해외출장: 1건당 10점 부여 - 단, 2박 3일 이상의 국내출장 및 5박 6일 이상의 해외출장의 경우 1건당 5점 가산

<상 황>

갑, 을, 병, 정, 무가 2024년 업무실적 및 부서장 평가에 대해 나누는 대화이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2024년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진실만을 이야기 하였다.

갑: 나는 2024년에 6페이지짜리 보고서 2건을 작성하고, 70장이 넘는 PPT를 3개나 만들었어. 고객사 미팅을 하나 나갔는데 계약 성사로도 이어져서 뿌듯했지. 그런데도 부서장 평가는 보통이더라.

을: 부서장 평가 우수는 도대체 누가 받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부서장 평가 보통을 받았거든. 2주 이상의 해외출장을 2번이나 다녀오고, 고객사 미팅을 3번 나가서 전부 계약 성사까지 이어졌는데 말이야. 과장님 요청으로 3페이지짜리 보고서는 10개는 더 만들었다고.

병: 내가 부서장 평가 우수야. 올해는 보고서를 많이 쓰긴 했지. 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3개나 썼어. 17페이지짜리 1개, 5페이지짜리 1개까지 올해만 보고서를 총 5개를 썼네.

정: 나는 고객사 미팅 다니느라 보고서 쓸 시간이 없었지 뭐야. 미팅이 줄줄이 잡혀있어서 올해만 15번이나 미팅을 나갔어. 근데도 계약 성사로 이어진 건은 없네. 그래서 그랬나 부서장 평가도 미흡을 받았어.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따라준 한 해였어.

무: 이상하네. 난 40장짜리 PPT 4개, 10장짜리 PPT 2개 만든 게 전부인데 그래도 부서장 평가 보통을 받았어. 아! 과장님 모시고 당일치기 국내출장을 매달 1번씩 다녀오긴 했네.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회사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능력 개발 및 관심사 탐구를 위한 자율 스터디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각 모임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은 전년도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정량평가 점수는 스터디 1회당 5점이 부여되며 만점은 70점이다. 정성평가 점수는 연간보고서 점수로, 만점은 30점이다. 평가점수는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다.

<표 1>의 기준에 따라 모든 모임은 우수, 일반 또는 장려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은 차등 배정된다.

<표 1> 스터디 모임 활동 결과 평가 기준

등급 기준	부여 등급	지원 금액
평가점수 50점 미만	장려	50만원
평가점수 50점 이상 80점 미만	일반	100만원
평가점수 80점 이상	우수	150만원

전년도 기준 A회사에는 총 20개의 스터디 모임이 활동하였으며, 각 모임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표 2>와 같다. A회사는 해당 평가 결과에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모임별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지원 금액을 차등 배정하였다.

<표 2> 스터디 모임별 평가 결과

(단위: 회, 점)

모임명	스터디 횟수	연간보고서 점수	모임명	스터디 횟수	연간보고서 점수
A	5	21	K	3	19
B	7	16	L	6	24
C	15	27	M	10	17
D	10	24	N	8	22
E	8	18	O	5	18
F	3	14	P	19	20
G	9	23	Q	7	28
H	18	22	R	11	21
I	4	13	S	12	15
J	1	11	T	4	20

- ① 일반 등급 모임의 개수는 장려 등급 모임 개수의 2배 이상이다.
- ②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의 점수 상한이 각각 75점과 25점으로 조정될 경우, 부여 등급이 달라지는 모임은 2개 이상이다.
- ③ 전체 모임에 대한 지원 금액 총합은 2,000만원 이상이다.
- ④ 우수 등급 모임들의 경우 스터디 횟수가 많을수록 연간 보고서 점수도 높다.
- ⑤ 우수 등급 모임에 대한 지원 금액 총합이 장려 등급 모임에 대한 지원 금액 총합보다 크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케플러(Kepler)는 티코 브라헤가 천체를 관측하면서 축적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행성의 공전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들을 발견하였다. 법칙의 발견은 근대과학 발전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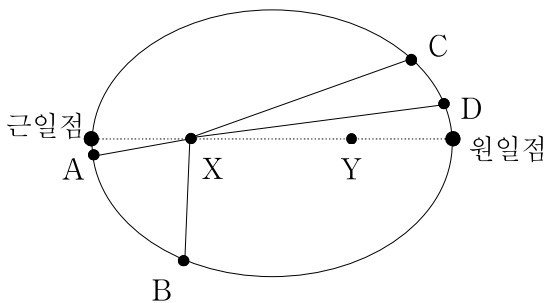
케플러의 법칙은 타원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타원은 평면상의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모든 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쉬운 예시로 종이 위에 일정한 길이의 줄 양 끝을 두 압정으로 고정시킨 다음 줄을 팽팽하게 하여 압정 주위를 따라 곡선을 그리면 타원이 완성된다. 이때 그려진 타원 위의 어떤 점에서도 각 압정과 거리의 합은 줄의 길이와 같은 일정한 길이가 된다.

두 압정이 위치한 지점은 타원의 두 개의 초점에 해당한다. 두 초점을 지나는 타원의 가장 긴 지름을 타원의 장축이라 하고 장축의 절반 지점인 타원의 중심을 지나는 타원의 가장 짧은 지름을 단축이라 하며, 장축과 단축을 기준으로 타원은 각각 대칭이 된다. 장축 길이의 절반을 긴 반지름이라 하며 타원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지구 궤도의 긴 반지름은 약 1억 5천만km로 이를 1AU라고 나타내며 화성 궤도의 긴 반지름은 약 1.5AU이다.

타원의 모양은 장축에 비해 두 초점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에 달려있다. 장축에 대한 두 초점 간의 거리의 비를 타원의 이심률이라 하며 이심률이 1에 가까워질수록 타원은 더 길쭉해진다. 지구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2이고, 화성 궤도의 이심률은 약 0.1이다.

케플러의 제1법칙은 행성은 타원을 궤도로 공전하며, 타원의 두 초점 중 한 곳에 항성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행성의 궤도는 항상 완벽한 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화성의 관측결과를 수용하기 위해 원이라는 인식을 바꾸게 된 것이다. 따라서 행성이 항성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근일점과 가장 멀리 위치하는 원일점이 구별된다. 이러한 두 점은 모두 행성 궤도의 장축에 위치한다.

케플러의 제2법칙은 항성과 행성을 연결하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행성이 공전함에 따라 항성과 행성을 잇는 직선이 공전 궤도면을 훑고 지나가는 넓이가 증가하는 정도는 같은 시간 동안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로 행성이 아래 그림과 같은 궤도를 가지고 시계방향으로 공전한다고 하자. 이때 행성 궤도의 초점은 X, Y점이다. 행성이 X점에 위치하는 경우 X점과 A점 및 B점 사이의 부채꼴 면적과 X점과 C점 및 D점 사이의 부채꼴 면적이 같다면 행성이 궤도를 따라 B에서 A로 움직이는 시간과 C에서 D로 움직이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케플러는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과 공전 주기를 연결짓는 간단한 대수 관계를 발견하였다.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그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 케플러의 제3법칙이다. 이는 항성으로부터 행성의 상대적 거리를 계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19. 위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성은 근일점에서의 속력이 원일점에서의 속력보다 빠르다.
- ② 지구 궤도의 단축은 2AU보다 짧다.
- ③ 항성은 행성 궤도의 장축에 위치한다.
- ④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한 초점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 ⑤ 화성 궤도의 두 초점 간의 거리는 2천 3백만km 이하이다.

20. 위 글과 아래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 ㉡에 들어갈 숫자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상 황>

다음은 항성 K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에 대한 정보이다. 공전 주기는 乙행성이 한 번 공전하는 것을 1년으로 기준 삼아 나타낸 것이다.

행성	공전 주기(년)	궤도의 이심률
甲	0.125	0.01
乙	1	0.01
丙	250	0.05

- 乙행성 궤도의 장축 길이는 甲행성 궤도의 장축 길이의 (㉠)배이다.
- 丙행성이 원일점에 위치할 때 항성 K와의 거리가 42AU였다면 丙행성이 근일점에 위치할 때 항성 K와의 거리는 (㉡)AU이다.

- | | | |
|---|---|----|
| | ㉠ | ㉡ |
| ① | 4 | 18 |
| ② | 4 | 38 |
| ③ | 8 | 18 |
| ④ | 8 | 28 |
| ⑤ | 8 | 38 |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매도인 甲이 제1매수인 乙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다시 제2매수인 丙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甲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X국 헌법이 보장한 의사결정의 자유에 속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의 자유는 민사상의 거래에서는 계약자유 원칙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계약 자유의 원칙상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특히登記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해 丙이 乙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丙이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해서 甲이 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乙의 입장에서 보면 甲의 행위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乙은 甲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법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2매수인 丙이 매도인의 배임 또는 횡령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이중매매는 무효가 된다. 이때 적극가담행위란, 甲이 타인과 매매계약을 한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의 가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X국 법원은 형제간에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질서에 반한다고 본다. 법질서에 반하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제2매수인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 丁이 있다면, 그 제3자 丁은 설령 제2매수인 丙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 ※ 1) A, B, C, D는 X국 법령의 적용을 받음
2) <보기>의 각 상황은 독립적임

<보 기>

- ㄱ. A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후 C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가 최종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된 경우, B는 A에 대해 A와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A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자신의 친동생 C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X국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ㄷ. A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 사실을 모르는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가 B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C가 소유권자가 된다.
- ㄹ. A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C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C와 체결한 계약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었던 경우, 해당 부동산을 C로부터 다시 취득한 D가 A와 C 간의 계약이 법질서에 반하는 것임을 몰랐었다면 D는 A와 C 사이의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화해에는 재판 외의 화해에 해당하는 화해계약, 그리고 재판상 화해가 있다.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화해계약이 체결되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화해계약에 기초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겨나게 된다.

화해계약은 재판 외의 화해로서 계약과 같은 효력을 지닐 뿐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화해계약의 내용을 공적으로 확실히 하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재판상 화해도 있다. 재판상 화해에는 제소 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다. 양자는 그 시기와 목적이 다르다. 제소 전 화해란 말 그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하는 합의로 소송 제기 전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소 전 화해와는 달리 소송상 화해란 소송 계속 중에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앞에서 소송 대상인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송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이다. 소송상 화해의 시기는 소송 계속 중이라면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제2심인 항소심 및 제3심인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비단 판결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절차, 강제집행 절차 등에서도 가능하다.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해 모이는 시간인 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해 구술로 화해를 할 수 있다. 화해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법관은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소송은 종료되며, 기판력이 인정된다. 기판력이란 소송이 종료된 후 동일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할 수 없고 이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이다.

화해는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면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보 기>

- ㄱ.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없이 화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서 정본을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송달했고,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기판력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 ㄷ. 소송의 당사자들이 제소 전 화해를 한 경우에는 이후 동일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할 수 없다.
- ㄹ. 항소심을 진행 중인 분쟁의 당사자들은 항소심 기일에 구술로 화해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조(조사위원회) ① 제○○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 조사할 위원회 확정을 위하여 별도로 집회 요구를 하여야 한다.
- ②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조사위원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경우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 ⑤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① 신규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甲이 등급에 이의가 있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乙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상이등급이 하락한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재판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丙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이 상승한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丁의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직권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이 상승하지 아니한 戊의 등록신청 결과는 기각이다.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甲, 乙, 丙, 丁, 戊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며, 주어진 상황 외의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조(정의) ① “피보험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2.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 ②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제○○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예술인 중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
3. 노무제공자 중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

③ 제○○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 용역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① 월평균보수가 동일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200시간인 A사업과 150시간인 B사업에만 동시에 모두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되어있는 甲은 A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② 자영업자이면서 C사업에 2주 동안 고용되어 근로 중인 乙은 C사업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만을 취득한다.
- ③ 예술인이면서 노무제공자인 丙이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인 문화예술 용역계약과 300만원인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丙은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④ 단기예술인이 아닌 예술인이면서 자영업자인 丁은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⑤ 예술인이면서 단기노무제공자인 戊가 3개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6. 다음 글과 <상황>에 근거할 때, ㉠과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일반적으로 수급인(공사업자)이 자신의 잘못으로 완공기한 내에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완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사 완공이 지연된 경우, 원래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체상금(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준공 약정일 다음 날이고, 그 종기(終期)는 도급인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통상적인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하고 도급인이 실제 공사계약을 해제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아니된다.

※ 준공(竣工): 공사를 다 마침

<상 황>

도급인 甲이 수급인 乙에게 건물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0억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래 약정한 공사 기간은 1. 1.부터 5. 31.까지 5개월이다. 乙은 1. 1. 공사를 개시하여 자금 부족으로 3. 31. 공사진행률 40% 수준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甲은 4. 20.에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5. 31.에 공사계약을 해제했다. 甲은 계약 해제 직후 다른 공사업자 丙에게 나머지 공사를 맡겼고 丙은 10. 31. 공사를 완공했다. 甲이 공사계약을 해제한 후 공사진행률 40% 수준에서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하는 데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은 3개월이다.

시기는 (㉠)월에 속하는 날이며 종기는 (㉡)월에 속하는 날이다.

- ① 12
- ② 13
- ③ 14
- ④ 15
- ⑤ 16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촌(읍·면을 말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된다.

1.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2. 연간 농업소득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연간 비농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농지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다.

1. 휴경 중인 농지의 면적
2.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의 면적

※ 1) 연간 소득금액 = 연간 농업소득금액 + 연간 비농업소득금액
2) 행정구역은 시·군·구 안에서 읍·면·동으로 구분됨. 따라서 ‘동’은 농촌에 해당하지 않음
3) 1헥타르 = 10,000㎡
4) <보기>의 상황 외에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휴경 중인 농지가 없고,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적이 없음

<보 기>

ㄱ. 2018년 3월 1일에 종전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시 △△동에 주소를 두며, 0.5헥타르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甲(연간 농업소득금액이 900만원, 연간 소득금액이 4,500만원)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된다.

ㄴ. □□시 ◇◇읍에 주소를 두고 20,000㎡의 농지를 경작하지만 1헥타르 농지에 대하여 휴경 중인 전업농업인 乙(연간 농업소득금액이 800만원, 연간 소득금액이 4,400만원)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된다.

ㄷ. □□시 △△동에 주소를 두고 1.5헥타르의 농지를 경작하는 후계농업경영인 丙이 14,700㎡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ㄹ. ○○군 ▽▽면에 주소를 두고 0.6헥타르의 농지를 경작하며 연간 비농업소득금액이 없는 농업인 丁이 2015년 8월 28일에 종전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방식 1’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은 필리핀 여행을 위해 원화를 페소로 환전하여야 한다. 갑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환전 후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더 많은 페소를 갖게 되는 방식 하나만을 선택한다.

○ 방식 1: 한국에서 원화를 페소로 환전한다.
○ 방식 2: 한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후 필리핀 환전소에서 달러를 페소로 환전한다.

방식 1의 경우, 필리핀에 도착한 후 리조트로 바로 이동한다. 방식 2의 경우, 필리핀에 도착한 후 환전소에서 환전하고 리조트로 이동한다. 이때 모든 이동은 택시로 한다.
한국에서 환전할 경우 25원이 1페소로, 1,500원이 1달러로 환전된다. 필리핀 환전소에서 환전할 경우 1달러가 61페소로 환전되나 수수료로 100페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시된 비용 외의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택시비는 리조트에 도착한 후 총액을 페소로 지불한다.

※ <보기>의 각 상황은 독립적임

<보 기>

ㄱ. 환전할 금액은 총 75만원이다. 갑이 리조트로 바로 이동할 경우 택시비로 100페소를 지불하며, 필리핀에서 환전소를 들러 리조트로 이동할 경우 택시비로 총 600페소를 지불한다.

ㄴ. 환전할 금액은 총 60만원이다. 리조트 바로 옆에 환전소가 위치해 있어 갑이 리조트로 바로 이동할 경우와 환전소를 들러 리조트로 이동할 경우 모두 택시비로 100페소를 지불한다.

ㄷ. 환전할 금액은 총 75만원이다. 갑이 리조트로 바로 이동할 경우 택시비로 200페소를 지불하며, 환전소를 들러 리조트로 이동할 경우 택시비로 총 1,200페소를 지불한다. 현지 환율의 변화로 필리핀 환전소에서 1달러가 62페소로 환전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9.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B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요일로 가능한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로봇 체험관은 매주 1회 휴관일(수요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된다. 로봇 체험관에서는 A, B, C프로그램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운영된다.

- <조 건> —
- 각 프로그램은 매주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A프로그램: 주 1회 운영된다.
 - B프로그램: 주 2회 운영된다.
 - C프로그램: 주 3회 운영된다. 단, 1회는 필수적으로 일요일에 운영된다.
 - 세부 운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B프로그램은 한 번 운영되면 휴관일과 상관없이 이틀간은 운영되지 않는다.
 - C프로그램은 한 번 운영되면 휴관일과 상관없이 다음 날은 운영되지 않는다.

- ① 월요일, 목요일
- ② 월요일, 토요일
- ③ 월요일, 일요일
- ④ 화요일, 금요일
- ⑤ 화요일, 토요일

3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 B, C조사관은 총 10개의 기관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각 기관은 서울에 3개, 부산에 2개, 인천에 2개, 세종에 1개, 대전에 1개, 여수에 1개가 위치하고 있다.

- <상 황> —
- A조사관 소관 기관은 서울과 인천에 없다.
 - B조사관 소관 기관이 가장 많다.
 - C조사관 소관 기관 중 같은 지역에 위치한 기관이 있다.
 - B조사관 소관 기관 중 세종에 위치한 기관이 있다면 C조사관 소관 기관 중 부산에 위치한 기관이 있다.
 - 각 조사관은 2개 이상의 기관을 담당하고, 같은 기관을 2명 이상의 조사관이 중복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

- <보 기> —
- ㄱ. 각 조사관별 소관 기관 수가 모두 다르다면, B조사관 소관 기관 수는 소관 기관이 가장 적은 조사관의 소관 기관 수의 2배를 초과한다.
 - ㄴ. C조사관 소관 기관이 인천, 부산에 있다면 여수에는 C조사관 소관 기관이 없다.
 - ㄷ. B조사관 소관 기관이 세종, 대전, 여수에 모두 있을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戊의 담당 토론 분야로 옳은 것은?

□□학과 동기인 甲, 乙, 丙, 丁, 戊는 교내 토론대회에 팀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교내 토론대회는 기술, 환경, 교육, 정치, 보건 5개 분야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토론이 개최된다. 甲, 乙, 丙, 丁, 戊는 각각 하나의 분야만을 담당한다. 이들은 토론 분야와 일정에 맞춰 다음과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 丙은 수요일 담당이지만, 정치 분야 토론 담당은 아니다.
- 교육 분야 토론은 금요일에 개최되지만, 丁이 담당하지는 않는다.
- 戊는 화요일 담당이 아니다.
- 기술 분야 토론은 목요일에 개최된다.
- 乙은 보건 분야 토론을 담당한다.
- 甲은 월요일 담당이다.

- ① 기술
- ② 보건
- ③ 정치
- ④ 교육
- ⑤ 환경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마을에서 C마을로 갈 수 있는 경로의 총 개수는?

甲시는 A, B, C, D, E 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甲시는 다음 조건에 맞춰 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였다. 각 마을은 물자 운송을 위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마을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직접 연결이란 두 마을을 직접 연결하는 다리가 건설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간접 연결이란 두 마을을 직접 연결하는 다리는 건설되어 있지 않으나, 한 개 이상의 마을을 거쳐 갈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A는 2개 마을과는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E와는 간접 연결되어 있다.
- B는 D를 제외한 모든 마을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 C와 D는 직접 연결되어 있다.
- E는 D를 포함한 2개 마을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 A와 C는 간접 연결되어 있다.
- 한 번 지나간 마을은 다시 지나갈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3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건물의 구조>

좌우

3층		301호	302호	
2층	201호	202호	203호	
1층	101호	102호	103호	104호

A건물에는 1~3층에 위의 그림과 같은 구조로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 6개의 기업(갑, 을, 병, 정, 무, 기)이 들어와 있다.

- 갑은 병의 바로 좌측 방에 들어와 있다.
- 을은 104호에 들어와 있다.
- 정의 바로 아래 방에는 기가 들어와 있다.
- 무는 자신의 층에서 가장 우측 방에 들어와 있다.
- 기는 2층에 들어와 있지는 않다.
-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은 층은 없으며, 102호에는 누군가 들어와 있다.
- A건물에는 6개의 기업만이 들어와 있으며, 이 외에 다른 입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보 기>
- ㄱ. 갑이 3층에 들어와 있다면, 정의 바로 윗방일 것이다.
 - ㄴ. 기는 103호에 들어와 있다.
 - ㄷ. 무가 203호라면 정은 202호이다.
 - ㄹ. 각 층별로 들어와 있는 기업 수가 모두 다를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제 테니스 협회는 협회 주관으로 여러 투어 대회를 진행하며, 협회에 소속된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협회가 주관한 투어 대회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얻는다. 협회는 프로 테니스 선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프로 테니스 선수의 랭킹을 발표한다.

국제 테니스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는 총 4개의 등급이 있다. 가장 상위 등급의 대회는 그랜드슬램으로 우승 시 우승자에게 2,000포인트가 주어진다. 그랜드슬램 다음 등급의 대회는 우승자에게 1,000포인트를 주는 ATP1000대회, 우승자에게 500포인트를 주는 ATP500대회, 우승자에게 250포인트를 주는 ATP250대회로 구성되어 있다. ATP500, ATP250대회를 제외한 대회에서는 준우승자에게까지 포인트가 주어지며, 우승자가 받는 포인트의 1/2을 얻게 된다.

2024년 6월 현재 프로 테니스 선수의 랭킹과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랭킹	선수명	포인트
1	갑	5,000
2	을	2,800
3	병	2,500
4	정	2,200
5	무	1,700
6	기	1,500
7	경	1,400
8	신	1,350
9	임	1,200
10	계	950

또한 2024년에 남은 국제 테니스 협회 주관 테니스 투어 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 각 선수들은 일정상 남은 반기 동안 4개 미만의 대회에만 참가할 수 있으며, 그랜드슬램과 ATP1000대회는 각각 1개만 참여할 수 있다.

대회명	대회 유형	대회명	대회 유형
롤랑가로스	그랜드슬램	신시내티 오픈	ATP1000
퀸스클럽 오픈	ATP500	바젤 오픈	ATP250
윔블던	그랜드슬램	상하이 오픈	ATP250
캐나다 오픈	ATP1000	세르비아 오픈	ATP500
일본 오픈	ATP500	중국 오픈	ATP500

- <보 기>
- ㄱ. 갑 선수가 윔블던에서 우승했다면, 다른 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갑 선수가 2024년 최종 랭킹 1위일 것이다.
 - ㄴ. 계 선수가 참여한 모든 대회에서 준우승했다고 가정하면, 최종 랭킹상 병 선수보다 높은 랭킹에 위치할 수 있다.
 - ㄷ. 을 선수가 롤랑가로스에서, 경 선수가 윔블던에서 각각 우승했다면, 병 선수의 랭킹은 최대 3위에 그칠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5.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 황>

甲과 乙은 가위바위보를 통한 계단오르기 게임을 하고자 한다. 10번째 계단을 먼저 밟는 사람이 승리한다.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를 통해 이기는 경우 1계단, 바위를 통해 이기는 경우 2계단, 보를 통해 이기는 경우 3계단을 올라갈 수 있으며, 같은 것을 내어 비기는 경우 둘 다 1계단을 내려가게 된다. 다만, 같은 것을 연속하여 낼 수는 없다.

甲이 첫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보를 내어 바위를 낸 乙을 이겼다. 甲은 보→바위→가위를 순서대로 반복하여 내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고자 한다.

<보 기>

ㄱ. 甲은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최소 5번의 가위바위보를 해야 한다.

ㄴ. 乙이 바위→보→가위를 순서대로 반복하여 내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한다면, 乙은 승리할 수 없다.

ㄷ. 乙이 바위와 가위만을 번갈아 반복해서 내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한다면, 乙은 승리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6.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 황>

甲과 乙은 처음 만난 날부터 5번의 기념일에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다.

○ 甲과 乙은 2014년 4월 7일(월)을 1일째로 연애를 시작하였다. 이 경우 2일째는 2014년 4월 8일이고, 1년째는 2015년 4월 7일이며, 2년째는 2016년 4월 7일이다.

○ 甲과 乙이 선물을 주고받은 5번의 기념일은 100일째, 1년째, 2년째, 1,000일째, 5년째이고, 주고받은 선물은 반지, 목걸이, 가방, 외투, 지갑이다.

○ 반지와 목걸이를 주고받은 요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다.

○ 가방과 외투를 주고받은 요일은 화요일이다.

○ 반지를 주고받은 날짜의 일의 자리 숫자는 7이 아니다(예: 4월 7일은 7, 5월 14일은 4).

○ 2016년과 2020년은 윤년으로, 2월이 29일까지 있다.

○ 각 기념일에 甲과 乙은 하나의 동일한 선물만을 주고받으며, 주어진 기념일과 선물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ㄱ. 가방은 甲과 乙이 1년째에 주고받은 선물이다.

ㄴ. 목걸이는 甲과 乙이 5년째에 주고받은 선물이다.

ㄷ. 2016년에 甲과 乙이 주고받은 선물은 지갑뿐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3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위원회 행정관은 ○○위원회 조사관(갑, 을, 병)의 명함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명함은 A, B, C 세 종류가 있으며, 각 명함은 네 가지 옵션(영어 병기 여부, 종이의 색, 별도 직함 표시 여부, 한자병기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각 조사관들은 네 가지 옵션에 대해 각각 점수를 부여하며, 명함에 부여된 네 가지 옵션에 대한 점수 총합이 조사관이 명함에 대해 부여하는 최종 점수(가산점수를 포함한다)가 된다. 각 조사관은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명함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A명함에 대한 최종 점수가 40점이고, B명함에 대한 최종 점수가 20점인 경우 A명함을 선택한다.

<조사관별 점수 부여 기준>

구분	영어병기	종이의 색	별도 직함 표시	한자병기
갑	병기 시 20점	금색: 10점 흰색: 5점	학위 표시 가능 시 30점	병기 시 10점
을	병기 시 20점	청색: 3점	직급 표시 가능 시 20점	—
병	—	청색: 30점	—	병기 시 5점

※ 모든 조사관은 자신이 점수를 부여하는 옵션을 모두 제공하는 명함에 대해 가산 점수(기준 점수 합의 50%)를 부여함

<명함별 옵션>

구분	영어병기	종이의 색	별도 직함 표시	한자병기
A명함	O	금색	직급 표시 가능	X
B명함	X	청색	학위 표시 가능	O
C명함	O	흰색	표시 불가	X

- ① 갑 조사관은 A명함을 선택한다.
 ② 최종 점수가 50점을 초과하는 명함이 있다.
 ③ 모든 조사관에게 부여받은 최종 점수의 합이 가장 낮은 명함은 A이다.
 ④ A명함을 선택하는 조사관의 수는 C명함을 선택하는 조사관의 수와 동일하다.
 ⑤ A, B, C명함의 가격이 각각 3만원, 4만원, 5만원이라면 ○○위원회 행정관은 총 10만원을 갑, 을, 병의 명함 값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3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각 조사관과 평가등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입법조사관 甲, 乙, 丙, 丁, 戊, 己 6명을 대상으로 업무실적평가를 하고자 한다. 업무실적평가는 기본보고서, 심층보고서, 간담회 개최 여부, 연구용역 용역비, TF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른 최종 점수를 계산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평가등급은 최종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S등급 1명, A등급 2명, B등급 2명, C등급 1명이다.

최종 점수 = [기본보고서 점수+(심층보고서 점수×가산점수)] + [간담회 개최 여부 점수+연구용역 용역비 점수+TF활동 기간 점수] × 9

6명의 조사관에 대해 각 항목을 평가한 결과 및 점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평가 결과>

구분		甲	乙	丙	丁	戊	己
기본 보고서	양적	28건	32건	34건	42건	31건	36건
	질적	중	하	상	중	하	상
심층보고서		단독 작성	단독 작성	공동 작성 (2명)	공동 작성 (4명)	단독 작성	공동 작성 (2명)
간담회 개최 여부		개최	개최	개최	미개최	개최	미개최
연구용역 용역비		2,0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2,100만원
TF활동 기간		5개월	4개월	2개월	9개월	6개월	5개월

○ 기본보고서 점수는 양적평가 점수와 질적평가 점수의 총합으로 하고, 양적평가 점수는 건수당 4점을 부여하며, 질적평가 점수는 질적평가에 따라 상은 40점, 중은 30점, 하는 20점으로 한다.

○ 심층보고서 점수는 50점이다.

○ 가산점수는 단독으로 작성한 경우 1.1로 하고,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1.6/작성자수로 한다.

○ 간담회 개최 여부 점수는 개최한 경우에만 10점을 부여한다.

○ 연구용역 용역비 점수는 용역비가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점, 1,7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5점, 1,700만원 이하인 경우 3점으로 한다.

○ TF활동 기간 점수는 5개월 초과인 경우 5점, 5개월 이하인 경우 3점으로 한다.

- | | | | | | | |
|---|---|---|---|---|---|---|
| | 甲 | 乙 | 丙 | 丁 | 戊 | 己 |
| ① | B | A | S | B | A | C |
| ② | A | B | S | C | A | B |
| ③ | B | A | A | B | S | C |
| ④ | B | A | A | C | S | B |
| ⑤ | A | B | A | C | S | B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제○○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되 해당 주차 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전기자동차의 충전은 제외한다)으로 이용한 경우

제□□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1] 노상주차장 주차요금표(제○○조제1항 관련)

(단위: 원/구획)

구분	노상주차장			
	1회 주차 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주간	야간
1급지	500	5,000	—	—
2급지	250	4,000	—	—
3급지	150	3,000	70,000	50,000
4급지	100	2,000	50,000	3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39. 위의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전기자동차를 타는 甲이 2급지 노상주차장에서 3시간 동안 충전했을 경우, 주차요금 총 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3급지에 소재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세 자녀를 양육하고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乙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다면 총 80%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丙이 4급지 노상주차장에 15일 동안 야간 주차를 할 계획이라면 1일주차권보다 월 정기권을 결제하는 것이 총비용이 적게 든다.

- ㄱ
- ㄷ
- ㄱ, ㄴ
- ㄱ, ㄷ
- ㄴ, ㄷ

40.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납부해야 할 총비용이 적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시장은 반드시 감면한다)

<상 황>

- 1급지 노상주차장에 2시간 주차한 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자
-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아닌 3급지와 4급지 노상주차장에 각각 5일씩 야간 주차한 국가유공자
- 저공해자동차를 지하철 환승주차장인 1급지 노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4시간 주차한 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한 자
- 3개월 전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2급지 노상주차장에 5시간 주차한 모범납세자
- 2급지 노상주차장에 3시간 동안 건설자재를 쌓아 둔 건설사 직원

- D, B, E, C, A
- D, C, B, A, E
- D, B, C, E, A
- D, C, B, E, A
- C, D, E, B, A